

## 국회의장단 모두 호남 출신...헌정사상 최초

변방에 밀린 호남정치  
중앙으로 도약할 계기  
내년 대선 미래 비전 창출  
호남주도 정권교체 이뤄야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부의장에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9일 선출되면서 국회의장단이 모두 호남 출신으로 구성됐다. 정 의원은 전북 진안, 박 의원은 전남 보성, 심 의원은 광주 출신으로 한 지역 출신이 국회의장단을 석권한 것은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다.

〈관련기사 3면〉

20대 전반기 국회의장단 석권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호남 정치권의 '힘'을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호남의 척박한 정치적 현실 속에서도 각기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 여야를 대표하는 중진 정치인으로 성장, 국회의장과 부의장에 선출됐기 때문이다.

우선 DJ(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 발탁, 정치권에 들어선 정 의원은 온화한 리더십으로 야당 대표를 세 번이나 지내는 등 정치력을 검증받으며 6선의 야권을 대표하는 인물로 우뚝 섰다.

박 부의장은 불사조, 오희이라는 수식어가 대변하듯이 수많은 정치적 수난을 헤치고 4선 중진으로 성장한 파란만장한 정치인이다. 그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호남 주도의 정권 교체를 외치며 국민의당 창당에 산파 역할을 하기도 했다. 특히, 박 의원의 국회부의장 선출은 지난 15대 국회 김봉호 의원에 이어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으로는 16년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심 부의장도 호남 출신이 성장하기 어려운 새누리당의 환경 속에서도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간간한 정치색을 보이면서도 5선에 성공, 정치적 자수성가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국회의장단 석권을 두고 만족하기 보다는 호남 정치권이 도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장단 석권이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호남 정치권의 초라한 현실도 냉정하게 직시하며 미래 비전을 창출하는 역할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DJ 이후, 호남 정치권은 대선 후보를 배출하지



“협치로 20대 국회 잘 이끌겠습니다”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과 심재철, 박주선 부의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 직후 국회의사무처 직원들과 상견례를 마친 뒤 서로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못하는 정치적 불모의 땅이 돼가고 있는 것은 물론 야권의 핵심에서 점차 변방으로 밀리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단 석권을 계기로 호남 정치권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권 창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호남 주도의 정권 교체를 실현시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대선에서 호남 주도의 정권 창출을 현실화 시켜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정치·경제적 불모지인 호남의 미래 비전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국회의장 정세균, 부의장 박주선·심재철

20대 국회 전반기 라인업  
14년만에 야당 출신 의장

더불어민주당 출신 6선(選)의 정세균(서울 중로) 의원이 9일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관련기사 3면〉

정 의원은 이날 여야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87표 중 274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정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탈당해 무소속이 됐으며, 오는 2018년 5월까지의

직책을 수행하게 된다. 야당 출신으로 국회의장에 선출된 것은 지난 2002년 16대 국회에서 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출신 박관용 의장 이후 14년 만이다.

국회는 또 부의장에 5선의 새누리당 심재철(경기 안양 동안을), 4선의 국민의당 박주선(광주 동남을) 의원을 각각 선출함에 따라 임기 개시 열흘 만에 국회의장단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여야 3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 경선을 했다.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더민주 경선에서는 정 의원이 총 투표 참석자 121

표 가운데 71표를 획득, 35표를 얻은 문희상 의원을 압도적 표 차이로 제치고 국회의장 후보에 올랐다. 박병석, 이석현 의원은 각각 9표, 6표를 득표하는데 그쳤다.

국회부의장 자리를 얻은 새누리당 경선에서는 비박(비박근혜)계 심 의원이 PK(부산·경남) 4선 중진인 김정훈 의원(부산 남갑)을 누르고 승리했다.

역시 국회부의장 한 자리를 얻은 국민의당 경선에서는 박 의원이 같은 4선의 조배숙(전북 익산을) 의원을 누르고 후보에 올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금리 1.25%

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관련기사 10면> 한은은 9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작년 6월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내린 이후 12개월 만이며 이에 따라 한은의 기준금리는 또다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날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는 그동안 일시적인 회복 기미를 보였던 국내 경기 흐름이 다시 부진한 양상으로 꺾이는 기미를 보여 이를 되살릴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예초 6월로 예상됐던 미국의 금리 인상 예상 시기가 미뤄진 점도 한은에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할 시간을 벌어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오는 14~15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정책금리를 추가 인상할지 결정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인하 결정했다”며 “글로벌 교역 부진의 정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것으로 판단했고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하방 리스크가 있는 점을 감안해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빛원전 쌓이는 핵폐기물(하) ▶6면  
새팔도유람-전북 고군산군도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동림동 프리미엄시대를 알리는  
광신프로그레스를 지금 만나보십시오

## 동림동 광신프로그레스

GwangShin Apartment

광주가 꿈꿨던 퍼스트클래스 라이프  
76㎡, 82㎡, 84㎡ 총 234세대

계약금

5% 정액제

발코니확장

무료시공

중도금

무이자

전세대

알파공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본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안전한 일반 분양 아파트입니다.

문의 062 511-1141

시행 |주|에이치원

시공 |주|광신종합건설

\* 본 홍보물이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였으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수변 교통시설 및 수변 현상은 인허가 및 정부시책에 따라 변경 및 취소 가능하며, 실제와 차이가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